

주요 연설문



동아일보 창사 21주년 기념 및 일간지 발행 11주년 기념

축 사

동아일보의 창사 2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임보현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로 동포사회의 희노애락을 찾아 하루하루의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신다는 점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아일보가 비록 열악한 취재 환경과 빈약한 정보의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낯선 이국 땅에 와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폭넓은 시사성과 사회성으로 동포사회를 선도해 나가 이제는 명실공히 필라 대표의 동포 일간지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우리 동포 모두에게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인쇄되어 쌓여지는 언론인들의 글 하나 하나에 우리 동포들은 울고 또 웃습니다. 그러기에 언론인 여러분들은 동포와 함께 호흡하며, 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동포들이 괴로울 때 위로자의 역할을, 동포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나누며, 동포들이 힘들어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신문이 발전하고 독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동포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일간지로써, 언론매체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감은 물론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더 맑고 발전된 필라 동포사회를 이룩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동아일보의 영원한 발전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5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필라델피아 식품협회 식품쇼 및 장학금 수여식

축 사

존경하는 신진 식품협회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올 수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온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2001 식품쇼 및 장학금 수여식"을 이와 같이 준비하신 신진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을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식품쇼는 여러 식품인들 간의 정보 교환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각 도매 업체들과의 유대강화 및 협력 방안의 실과 허를 점검하고 식품인들의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매년 지속되는 식품쇼가 식품인들은 물론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기여한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해마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고객 중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 지역고객 과 한인들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고객 2 세들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곁드린 행사는 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인 식품인들은, 이민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지역에 들어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강한 저항을 받으며 좌절과 실의 속에 어렵게 성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이들로 부터 인정받는 오늘의 식품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식품인 한분 한분의 노고는 물론 귀 협회의 역할이 타 어느 단체 보다 컸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헌신적으로 협회에 봉사해온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11 뉴욕과 와싱턴 핵심부에 항공테러 자살공격으로 한인을 포함한 6 천 여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와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참사에 대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9 월 12 일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인 국제 테러분자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번참사를 당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각 지역 한인회에 긴급대책 반을 설치하여 이들 희생자를 돕기 위한 “헌혈과 모금운동 그리고 피해 복구 사업에 우리 한인동포들도 인종을 초월하여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부시 미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서한을 부시 미대통령과 파타키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바 있었습니다. 그후 오늘 현재까지 미주 총연 사무처에 집계된 미주 한인동포들의 모금 총액은 2 백만 불을 육박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러 사건이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은 영국과 연합하여 탈레반 군사시설과 훈련시설을 목표로 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지상군을 투입 탈레반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뉴스이나, 국제 테러분자들의 생화학 공격이 미 전역에 확산하면서 또 다른 테러계획을 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식품협회가 9.11 희생자 가족과 아픔을 동참하고 이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인종을 초월하여 희생자 돕기 성금 모금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신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탁월한 희생정신과 사회 참여 정신을 볼 수 있어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으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식품인들의 사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전환기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식품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영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대남부 뉴저지 구정의 밤에서

축 사

존경하는 소헌 회장님,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근 각지에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구정파티와 민속축제의 의미는 새롭게 새해를 설계하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그 의미를 되살림은 물론, 한인회를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인동포사회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9.11 자살 테러 공격으로 상상을 초월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이로 인한 많은 희생자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은 물론 아프간 전쟁으로 인류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어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려, 동포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고 우울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이민사를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하와이 사탕수수 밭 이민을 시작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600만 한인 동포 38%에 해당하는 220만이 미주 각 지역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며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170여 개의 지역 한인회가 연합하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구성, 동포 사회에 구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간 대 뉴저지 한인회 역대 회장님들이 총연 중심부에 적극 참여하여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이번 9.11 테러 공격 희생자 가족을 위해 미주 전 지역 한인 사회에서 모금하여 미 관계 기관에 접수시킨 성금은 4백 30만여 불로, 미 주류 사회와 아픔을 같이 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포 사회의 저력을 갖춘 문화 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동포 여러분께서 신사년인 지난 2001년도가 보람된 한 해였다면, 그 보람된 일들이 지속되는 임오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한 해였다면 저물어 가는 이 해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보내고, 희망찬 새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소헌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대 뉴저지 한인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북미 연합회 이준성 & 김병직 회장 이.취임식

축 사

존경하는 시애틀 문병록 총영사님, 김병직 서북미 연합회장님 그리고 서북미 연합회의 신, 구 회장 이.취임식에 참여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998 년이래 서북미 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거쳐, 제 2 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이준성 회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오늘 제 3 대 서북미 지역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병직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북미 연합회는 4 년 전 신호범 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창립하여 발전을 거듭하며 서북미 지역 한인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이준성 회장은 미주 총연의 이사장으로, 김병직 회장은 부회장으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등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중심에서 크게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고해보면,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9.11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동포 사회 경제 또한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으나, 9.11 희생자 돕기에 미주 한인 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2001 년 12 월 말 현재까지 각 지역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집계된 금액 4 백 28 만불이라는 거금은, 우리 민족의 역량과 위기 상황에 대처해나가는 문화 민족의 상을 미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연은 200 만 미주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Net-Work 의 기본 단계를 180 여개 지역 한인회의 힘을 결집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총연 Homepage 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 동포법)이 작년 11 월 29 일 모국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2003 년 12 월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 여 년간 미주 한인 사회가 온갖 노력 끝에 얻어낸 재외 동포법이 개정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02 년 3 월 22 일, 국회 안보 포럼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한인 사회 현황과 동포 정책"이란 제하의 원고를 부탁 받았으나, 당일 공청회장에서는 동포의 범위를 1948 년 이후 재외로 이주한 동포로 제한하는 것은 재외동포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요소를 제거하여 재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려되는 중국 정부의 반대는 외교적 노력으로, 모국 내 경제 시장 혼란은 시행 세칙의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재외 동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 3 대 서북미 연합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시는 김병직 회장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이사장, 임원 여러분들의 건투와 서북미 연합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년 4 월 23 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북부 뉴저지 한인회장 이.취임식

축 사

존경하는 김종찬, 연인철 회장님 이하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 간 뉴저지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김종찬 회장님의 그간의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동안 뉴저지 한인회는 9.11 테러 참사 발발 직후 비상 대책 본부를 마련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헌혈, 성금 모금 운동 및 성조기 무료 보급 운동 등을 펼치며 테러 참사 복구 작업에 힘쓰는 등 발빠른 대응책으로 미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소수계를 차별하는 공직자의 '형사처벌 법안' 지지 공문을 보내고, 한인회 신문 발간을 비롯해서 MK-TV '타운 뉴스' 방송을 통해 한인사회의 각종 정보와 활동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한인회보에서 보았습니다. 지역 한인회로서는 커다란 사업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쁜 사실은, 지난 대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던 연인철 회장님께서 연이어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시게 되어, 제 11 대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웠던 업적은 보완해 나가면서 한인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인 모두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주 총연은 5월 17, 18일 양일 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02 Kore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102명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사회가 어느덧 200여만의 한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미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크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정치 참여에 미흡하여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미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여건을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 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실 때에 우리 2세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제 12 대 연인철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뉴저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 사회가 단결하여 더욱 발전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뉴저지 한인회와 이 곳 동포 사회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끔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30일

이 오 영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2002 한인 지도자 대회 (워싱턴 DC)

회 장 인 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Former Congressman Lucien Blackwell , Dr. John Tsu, Dr. John Doung, 노동부 전신애 국장님(Sinae Chun-as the 15th Director of the Women's Bureau), Dr. 진교륜 평화봉사단 정책 기획 국장님, 대사관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이현주 총영사님, 멀리 한국에서 참석해주신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김재숙 재 일본 민단 중앙 단장님, Dr. 최성 이민 100 주년 한국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미 50 개 주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인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인들은 우리 이민의 선배들이 1903 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을 시작으로 내년 2003 년 1 월 13 일이면 100 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 깊은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주에서 한인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이민 집단은 1965 년 이후에 'American Dream'을 갖고 이 땅에 도착한 사람들로서 현재 2 백만이란 숫자가 미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 1 세인 한인들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풍습이 다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량한 미국 시민이 되어 이땅에 주류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면과 성실'이란 민족성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의 경제, 의료, 학계, 체육, 문화, 법조계 등 중요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정치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에 말씀하신 Former Congressman Mr. Lucien Blackwell, Dr. John Tsu, Dr. John Doung, 전신애 국장님 등과 같이 미 주류 정치 분야에 깊은 경륜을 가진 분들을 이 자리에 Panelist 로 모셔서 참여 방안을 배우고, 또 몇분의 중요지역 현직 한인회장님들의 미주 각 지역 현장에서 경험한 자료를 기초로 토론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주류 사회 참여 방안과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감으로 우리 민족, 특히 차세대 젊은이들이 점차적으로 미 주류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Conference 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중 행사로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진교륜 박사, 박선근 상임고문, 문흥택 워싱턴 DC 한인회 연합회장, 그리고 양성철 대사님,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신필영 전 총회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지 한인회장으로서 경험을 기초로 주류 사회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오후 워크숍 Program 에서 토론자로 수고해주실 회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2002 년 5 월 18 일

이 오 영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a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I was making a speech in korean.

It is my great pleasure to speak in front of you this evening. I would like to first express my appreciation to everyone involved in the 27nd _____.

Your effort and hard work has made this a success. I would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the presid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s in U.S.A. And I'd like to also welcome all of you to this ceremony.

The ceremony is a significant event in that it allows people in the food industry to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while serving as a window for potential new markets.

In addition, the annual scholarship award specially recognizes the 2nd generation students of our neighborhood who have most actively been involved in various volunteer and community services. Through this recognition, we hope to encourage our children to build stronge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within our community.

I am also proud to recognize the members of the Korean Food Association who have come together to take a lead amongst the Korean community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9□11 tragedy.

Again, I would like to thank those individual who have diligently worked to prepare today's event.

I would like to wish everyone to have a great time this evening.

May God bless all of you,

Thank you very much



임보현 홍보 분과위원장과 서경호 이사

2001년 세계 한민족 문화제전 이한동 국무총리 만찬 환영인사에 대한 답사

존경하는 이한동 국무총리님, 권병현 재단이사장님 그리고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대륙을 횡단하여 오늘 동포재단이 3 번째 주최하는 “2002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신 세계 한인사회 대표자 여러분!

이렇게 만뵈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 금 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만찬 답사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세계각국에서 모국을 찾아온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이와 같은 성찬으로 환대해 주시는 이한동 국무총리님께 오늘 참석하신 세계한인 회장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88 올림픽 이후 이번 월드컵때처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하고 있는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느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지음 눈을 감으면 어데선가 “오! 필승 대-한국!” 민족의 뜨거운 응원의 붉은 함성과 자랑스러운 태극의 물결이 파도처럼 마음속에 밀려오는 아련한 환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번 월드컵 응원을 통하여 국.내외한민족이 스스로 하나되어 뜨거운 애국심으로 표출되는 한 단면이 영상처럼 스쳐가는 환상이기도 하며, 월드컵 4 강 진출이란 신화 창출로 능력있는 민족의 단합된 힘이 활화산되어 지구상에 질서 있게 꽃피우는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국내외 동포들의 령량이 하나로 결집될 때 무한한 신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손 대대도록 자랑스럽게 전해줄 값진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민적 단합과 애국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각분야에 걸쳐 확산되어야 하는 국민적 기대 또한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화 창조를 일구어내기까지 국정의 중심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국무 총리님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재외동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는 항상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하여 그리고 동포센타 건립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의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사회의 힘을 하나로 묶어 재외 동포들의 자산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속의 중요 구성요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고뇌하기 위하여 이번에 자리를 같이한
의의는 참으로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주신 이한동 국무 총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월드컵을 통하여 단합된 애국심을 민족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 시켜 민족의 가슴 가슴마다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 필승 대-한국”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짜짜 짜짜 짜짜”으로
손뼉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9일

미주 한인회 총합회 회장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 이 오 영 배



이민 100주년을 맞아 U.S. Korea에 기고한 글
『The 100th year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Oh Young Lee, President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One hundred years ago from this day, our forefathers came across the vast Pacific Ocea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hopes to establish a new home. We might not be where we are today without the footprints of the forefathers who have struggled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being in a new country. Through their strength and dynamism, they have exemplified optimism for our immigrant lives.

January 13th, 2003 will mark the 100th year since our first immigrant ancestors arrived in Hawaii to work in the sugar cane refinery.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of the Korean immigrants since their first arrival in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arena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Congress. On June 27, 2002, the US Senate reached the decision to commemorate January 13, 2002 as the "Korean immigration 100th year" anniversary.

The significance of commemorating this day is to reflect upon the past 100 years of Korean immigrant lives, and to launch plans for the next 100 years. We must reconfirm to the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passing our proud legacy to our children. To achieve our goals,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has formed a 100th year commemoration special committee. This committee will focus on coordinating events and promotions for January 13th, 2003. This day will be declared as the "Korean Immigration 100th year Day." The various commemoration events and promotions will be held simultaneously in numerous cities and States with significant Korean population. The Korean Associations of the various States will also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by their Korean community to take part in the events and festivities.

As we review the recent Korean immigrant history, we must acknowledge our predecessors who sacrificed their lives in battle to help liberate Korea from Japanese oppression. More recently, Koreans living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united their efforts with their mother country to help conquer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IMF crisis in Korea. Korean Americans have also shown love, humanity by taking the initiativ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families and victims of the 9. 11 terror attacks. As a result, \$4,500,000 was collected for the relief efforts.

In addition, Koreans all over the world have shown unity in spirit and patriotism during Korea's dramatic performance in the 2002 FIFA World Cup.

This unification of spirit has served to stretch the boundaries for Koreans to open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in all aspects of life.

As we face the 100th year of the Korean immigration, we must ride the current wave of enthusiasm, patriotism and unity to lead in the 21st century. Foundation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turn today's surplus of strength into a concrete basis for tomorrow's bright Korean American future.

First, we must recognize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and lay the ground work to build national strength and unity.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focusing too heavily on Nationalism as citizens of the world continue to transcend over individual, national boundaries and identities. However, for a nation to emerge as a leader in the 21st century, there must be a strong foundation for its people so as to establish its concrete identity. A nation that will endure continuous prosperity is a nation that will cultivate its strengths and step forward with open mindedness as it positively competes for success. This nation must have global vision.

There are 6 million Korean immigrants living outside of Korea. To truly become efficient and have unity, we must devise a means that will pool all of our resources from the separate international Korean communities. We need to construct a solid Network of the international Korean communities to connect all Korean people living abroad. Furthermore, the Korean immigrants of the United States must take initiative considering their geopolitical proximity. There are 2 million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US which consists of 33% of the total 6 million Korean immigrants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the preeminent world power and the home of the United Nations.

As a microcosm model of the Korean immigrant world network, the Korean communities of each State must assemble around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their State, and similarly,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of all States must connect with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in order to create a strong Network system within the US.

As Koreans we must not be overly critical or overlook the importance of unity. The posi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an absolute necessity and must outweigh the individual's personal gain. The Korean Associations represent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It is our duty as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to overcome situations as one.

Secondly, we must work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ur future generations can take ownership and thrive in a land that they can call home. For the prosperity of immigrants to occur, we must give up our egos and be united within our community to accomplish a greater goal of creating a greater society.

Furthermore, we must decrease the gap that exists between the old and new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s. It is imperative for us to help each other in becoming successful in various professional arenas. The first generation must be ready to pass on their national identity and assets that have been built up, while the newer generations must be willing to take up the mantle and continue to create a stronger unity.

Lastly, we must work towards the reunifica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faster the reunification of the mother land, the better it is for Koreans. Finding a common groun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owever, should not be ignored for the desire for a quick reunification. Proper negotiation to meet the needs of both sides is absolute. This will foster mutual respect for both sides. Emotions and selfish aspirations must be put aside to attain a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must take steps in order for mutual respect to develop.

Korean immigrants have the advantages of being on the outside looking in. This affords us a unique opportunity to participate more objectively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than it is possible for Koreans living in Korea. Yet, it is important to support and identify with the decisions established by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of our mother country.

This will allow for a unity of all Korean people throughout the world.

미주 동아일보 창간 22주년 기념식

축 사

우선 미주 동아일보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민 사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람보다는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필라 동포 사회를 기점으로 미주 전역으로 확산 발전해 가는 동아일보의 성장모습을 보면서, 임보현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능력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동포 사회가 진정 바라는 동포사회의 언론의 길은, 동포사회의 정의 구현과 발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화 하여 동포 사회에 알리며, 때로는 억울하고 암울한 동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되고, 동포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되어 명랑하고 응집력 있는 결집된 동포 사회건설을 위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 있는 대안 제시가 병행하는 품위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미주 동아일보는 임보현 사장님은, 착실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더불어 아픔을 같이 하고, 이민 정착을 위한 동포들에게 밝은 내일의 꿈을 잃지 않게,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보람을 갖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믿고 있어 항상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일이지만, 현재 미주 동포 200 만이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기까지는 100년 전 하와이에 상륙한 102 명을 기점으로, 1903-5년까지 7700 여명의 우리의 이민 선조 들이 하와이 사랑수수밭 등지에서 희생한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지난 100년 간의 선조 들의 업적을 발굴하여 기리고, 100년 후 우리의 후대들에게 떳떳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값진 유산이 될 사업의 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동포 지도자들과 언론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동아 일보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항거하며, 속박 받는 우리민족의 대변지이자 희망지로 성장해온 언론의 선구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아 일보도 이와 같은 창업정신을 계승하여 품위 있는 언론으로 일취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민 동포들의 가슴에 영원히 신뢰받는 언론으로 영원히 남게될 것이라 믿으며, 미주 동아일보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창간 22주년에 드리는 축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미주 동아 일보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25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2002년 동남부 연합회 체육대회

축 사

존경하는 동남부 연합회 김영오 회장님, 아틀란타 한인회 김백규 회장님, 그리고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축사를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7-18일 양일 간 실시된 이번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워싱턴 DC '2002 한인 지도자 대회'에 김백규 아틀란타 회장과 동남부 지역에서 임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여 성원해주셔서 성황리에, 그리고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로 마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최근 계속된 여러 차례의 평가전에서 질 높은 경기 내용을 보이며,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기대를 한층 앞당겼을 뿐 아니라, 8강까지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심스레 제기될 만큼 뛰어난 기량과 높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유타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심판 불공정 판정으로 금메달 획득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김동성 선수가 캐나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전관 왕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역량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골프의 박세리, 프로야구 박찬호, 김병현 등 많은 이들이 스포츠로 자신감 있는 민족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이곳 모국을 떠나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큰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2년 이상 이어져 온 동남부 한인 체육대회는 동남부 지역 한인들의 화합과 단결, 끈끈한 결속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동남부 선배 회장님들이 좌절하지 않고, 동남부 지역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는 행사를 지속함으로써 한인 사회의 화합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어 미 동남부 지역 한인들의 화합과 단결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남부 연합회 김영오 회장님, 아틀란타 한인회 김백규 회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이 오 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LA 한인회 하기환 회장 연임을 위한

축 사

존경하는 하기환 회장님, 이영송 이사장님, 그리고 LA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연임되는 하 회장을 축하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LA 한인 동포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2년 간 수고하신 하 회장, 이 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임원, 이사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임기 2년을 위해 취임하시는 하 회장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LA 한인회장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이란 중요 임원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어 하 회장의 지난 2년 간 LA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과 미주 총연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9.11 미국이 자살 공격으로 뉴욕과 워싱턴 DC 에 인적,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할 때 국적을 초월한 인류애를 발휘하여 문화 민족으로 손색없도록 121 여만 불이라는 큰 액수를 모금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LA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

이제 다가 올 2003년 1월 13일은 우리 이민 선배들이 미국 하와이 땅에 이민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배들이 이 땅에 뿌려 놓은 100년 간의 업적을 기리며, 앞으로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기환 회장의 재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못 다 이룬 사업의 완성과 LA 한인 사회의 구심화와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여건 조성 과 확산이란 중 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알고 또 잘 감당할 수 있으리란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중 차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LA 지역 한인들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포 사회의 여하한 잡음도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와 대화 속에 풀어내야 하며, 개인보다는 한인회를 위해 살신성인의 협조와 이해들이 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감정을 앞세워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협조적일 때, 동포 사회는 분열만 가중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 회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민 1세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합의 기틀 위에 '미주 한민족 공동체 구심기구'를 구축하는 일과 차세대와 연계하여 '주류 사회 진입 여건 조성 및 확산'이라고 보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LA 한인 사회가 LA 한인회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하듯이, 지역을 초월한 우리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200 만 미주 한인 공동체의 중심에 실존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회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지역 한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심 없는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확고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인 인구 60 만의 대도시가 미주 지역 한인회 및 200 만 한인 사회 대표 기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로 함께 발전하는, 함께 이루는 동포 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하기환 회장의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만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20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제 27 차 미주 식품협회 총연합회 정기 총회

축 사

July 20, 2002

존경하는 구분서 전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회장, 신진 필라델피아 식품협회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올 수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발전해온 전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27 차 총회를 이와 같이 성황리에 치르도록 준비하신 구분서 회장님 그리고 필라델피아 신진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을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27 차 전 미주 식품상 총회는 전 미주 33 개 지역회와 제조업체들이 한데 모여 정보 교환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각 도매 업체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협력 방안의 실과 허를 점검하고 식품인들의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식품 협회가 식품인들은 물론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기여하면서 아울러 해마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고객 중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고객과 한인들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고객 2 세들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인 식품인들은, 이민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지역에 들어가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강한 저항을 받으며 좌절과 실의 속에 어렵게 성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오늘의 식품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를 구심으로 식품인 한분 한분의 노고와 각 지역 식품협회의 역할이 타 어느 단체 보다 컸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헌신적으로 미주 식품상 총연합회에 봉사해온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11 뉴욕과 워싱턴 핵심부에 항공테러 자살공격으로 한인을 포함한 6천 여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와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참사로 경제 사정이 말할 수 없이 나빠졌으나, 식품업계에서

는 일치 단결하여 피해자에게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했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쳐 '알츠하이머 가족돕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고, 여자 친구를 보호하려다 불량배들과 충돌하여 구속.수감 중인 민성식 군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추방을 저지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악조건을 잘 헤쳐 나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식품인들의 사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전환기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식품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영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20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 오 영



57주년 8.15 경축사(기념사)

8/15/02

이오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오늘 조국의 57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을 위하여 이 자리를 준비하신 필라 한인회 정미호 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만 재미 한인을 대표하여 기념사를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돌이켜 보면, 8.15의 광복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로부터의 탈퇴요,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복이전 36년간 일제로부터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었고, 민족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유린되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맨주먹 불끈 쥐고, 열화 같은 함성으로 3.1운동을 일으켰고, 가족을 뒤에 두고 만주에서, 미국에서, 구 소련에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선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조국 광복은 찾았지만, 조국은 또다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소련의 흥정 속에 남북이 분단되어 이념의 대립으로 민족의 상잔이란 6.25의 비극을 맛보아야 했으며, 민족의 분열로 긴장과 적대로 50년 반세기를 보내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조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한반도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통탄할 일은, 아직까지도 일본은 지난날의 침략과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날조하기 위하여, 역사 왜곡으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는 현대판 만행을 단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가진 민족이란 것을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자 일본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넘보는 경시 풍조가 맞물린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생활과 목숨까지도 바쳤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미완성된 조국 광복의 완성을 위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사명

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한반도 통일에 적극 기여하면서, 이민 1세로 이 땅 위에 주체로서 자리잡아야 하는 숙명적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1 세로서, 이 땅의 주체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적인 운명이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기초 위에 한인 사회의 결집된 힘을 배양하여 강력한 한인 사회를 이룩하면서, 민주.문화 의식으로 주거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인정받는 민족으로 성장할 때,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키며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미국의 복합 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부상할 때, 우리는 주류 사회의 주체로서 자리잡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대들에게 평가받는 선배로서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주최하는 57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하나의 기념 행사로 마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 이 땅의 주체로 각오를 새롭게 하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경축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한인회장단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 도열하고 있다

중서부 연합회 주소록 발간

축 사

우선 중서부 연합회 한인 주소록의 발간을 통해 중서부 지역 한인들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들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한인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이어가시는 오기택 회장님과 중서부 지역 모든 한인들께 감사와 격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참다운 봉사라는 것은 언제나 영광보다는 희생이, 칭찬보다는 비난의 아픔이 있게 되어 있으며, 참다운 봉사자는 이러한 아픔을 보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김홍강 연합회장님께서도 지역의 위기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충실히 임기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기택 회장님께서서는 취임 이후, 중서부 연합회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함으로 중서부 연합회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이고 있으며,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중서부 연합회 지역 한인들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지역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정받는 힘있는 한인 사회 건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소록 발간으로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가 보다 체계화하고, 보다 조직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랫동안 한인 동포들 사이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택 회장을 비롯하여 본 한인 주소록 제작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 임원 여러분의 가정과 한인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9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배

김각중 전경련 회장 환영 만찬에 대한 답사

방금 소개받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 세계상공인협회 이사장이신 김덕룡 의원님, 권병현 재외 동포 재단 이사장님, 임창빈 미주상공인협회장님 그리고 5 대양 6 대주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오늘 한상 대회를 찾아오신 경제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울 수 있어 반가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환영 만찬에 답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주신 전경련 김각중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 9.11 국제 테러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미국이 이락의 무장해제를 UN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후세인의 퇴진을 압박하는 군사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을 위시하여 모국의 경제계에서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제 강국의 진입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실천에 옮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래전부터 권병현 재외 동포 재단 이사장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재외 동포 600 만을 Net Work 하여 민족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국내외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엄청난 숫자의 경제인 동포를 “한상대회”라는 이름 하에 한데 모이게 하여, Net-Work 를 구축하게 함으로서, 한민족 동포 경제인간에 교역의 활로를 넓히고, 한 민족이란 민족의 자긍심과 동질성을 통하여 상거래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력 부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해야겠다는 선구자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중국이 이미 “화상 대회라는 화교 정책”을 통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중국 경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의 신화 창조를 통해 민족의 단합된 열기와 애국심을 확인한바 있으며, 우리민족이 무한한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성숙된 저력 있는 문화 민족으로서

월드컵 4강을 이룩한 신화창조의 열기와 단결된 애국심을 민족 상호간의 경제 활로 개척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 4강의 신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주제님은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제 1 차 “한 상 대회”가 단순한 만남의 장으로 평가 절하 되는 “실천 없는 연례 대회”가 되지 않도록, 이모임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찾아 교역의 폭을 넓히시고, 새로운 지역과 국가에 판로를 개척, 그 여력을 전세계로 확산하여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한상 대회”로 값진 만남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여 주신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단상을 내려가기 전에 건배를 제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고 제창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로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8일

이오영



동남부 연합회장 (김영오 & 이석희) 이.취임식

축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2년 간 제 18대 동남부 연합회장으로 수고하시고 이임하시는 김영오 회장님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앞으로 2년 간 제 19대 동남부 연합회장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시고, 의욕에 찬 마음으로 취임하시는 이석희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출범하는 제 19대 동남부 연합회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그리고 한미 수교 50주년을 맞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연합회의 역할이 중차대 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새로 구성된 임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석희 회장께서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에 새로이 선임되심도 이 기회에 축하드립니다.

중앙상임위원이란 미주 총연 회장단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미주 총연 중심에서 중요 결정기관의 일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기중 비교적 여타 지역 보다 아틀란타 지역에 많이 오는편인데 그것은 이지역에 저와 개인 친분이 많은 총연 임원과 회원이 많이 계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동남부 연합회는 지금까지 동남부 지역 한인 사회의 권익과 동남부 지역 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면서 더불어 발전해왔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 임기 2년이란 결코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2년이란 봉사 기간은 그리 평탄하지 않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석희 회장께서는 지난 아틀란타 지역한인회장과 직전 동남부 연합회 이사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력과 능력을 가지신분으로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후대들에게 값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기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집행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남부 지역 한인회와 한인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주 이민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에 걸맞게 미 주류 사회 중심에 힘있는 민족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 중에 하나는, 미주 땅의 한인동포들의 체계적인 한민족 공동체 Network 구축으로 민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완성입니다

이는 세계방방곡곡에 나가 살고 있는 600 만 재외 동포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한인사회는 소속 한인회를 중심으로, 지역한인회는 소속된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합회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종적·횡적인 힘을 모아주는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동남부 연합회 출범에 앞서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 관계로 발목 잡거나, 파벌조성은 없었는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이나 편견은 없었는지, 한번쯤 우리주의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잘못된 꾸짖되 사소한 잘못은 포용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大(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 못할 바엔 긍정적으로 관망하는 자세의 넓은 가슴의 민주 시민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우리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모국의 월드컵 4 강 의 신화 창조 의 열기는 국내외 국민 동포모두가 조건 없는 참여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애국심이 조화되어 표출된 민족의 위대한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 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금기 시 되어왔던 붉은색과 태극기가 한데 어울려 ‘오 대한민국’ 이란 애국의 함성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파도치던 경이적인 광경, 그 성숙된 응원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애국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민족의 열기를 우리는 21 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미국 땅에 구축하여 후세에 떳떳이 넘겨줄 새로운 ‘이민문화 창조’에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이석희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신 동남부 연합회 임원들께 힘찬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포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년 10 월 26 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배.

미주 중앙방송 30주년 기념

격려사

(2002. 11. 14. 목)

이 오 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미주 중앙방송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격려사를 전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덕수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라 유일의 한인 방송인 미주 중앙방송은 지난 1972년 WIBF-FM 을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한국어 방송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87년 3월부터는 WYBE TV 한국어 방송을 시작하여 이제는 매일 3시간씩 연장된 방송으로 영어자막 드라마 등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목.금요일은 저녁 10시로 앞당겨져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어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까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등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방송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김덕수 회장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의 젊음을 다 바쳐 지역 사회와 더불어 아픔을 같이하고, 동포들에게 밝은 내일의 꿈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면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바라고 싶은 것은, 보다 많은 필라 동포들의 성원 속에 방송시간이 초저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필라 동포들이 즐겨 찾는 프로그램개발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것과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이민 100년을 새로이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를 걷는 수준 높은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미주 중앙방송은 미주 이민 역사에 한 장을 기록하며 필라 동포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어느덧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힘과 격려,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할 때만이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격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미주 중앙방송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김덕수 회장님을 비롯 미주 중앙방송과 필라 한인 동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신년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존경하는 미주 2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미 50개 주 각 지역한인회 전.현직 회장님 !

다사 다난했던 임오년도 이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신 한해였다면 축하드리고, 그러하지 않으면 새해에는 뜻이 꼭 이루어지시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회고하면, 모국에서는 지난 월드컵 경기 당시 모국에서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남한에서는 금기시 되어 오던 붉은 색과 태극기가 함께 어울려 물결치며 ‘오-대한민국!’ 외치는 온 국민의 장엄한 함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응원 문화와 애국문화를 창출하는 국민적 기쁨을 만끽했던 한해이기도 했으며, 12월 19일 역사적인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이 탄생하는 국민적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정부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어린 두 여학생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국민적 공분이 점점 확산되어 지난 12월 14일 전국각지에서 30만이란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 두 여학생의 죽음을 추도하고, 미 부시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있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자칫 반미 시위로 급선회하여 한미 동맹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가 우려가 높아 저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두 여학생의 사망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국민적 공분을 함께 통감하나, 반미시위로 전개되어서는 결코 한. 미 양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미 부시 대통령에게 세계강국의 대통령답게 보다 적극적인 사과와 SOFA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함으로서 “강한 리더쉽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진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결과가 되어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동맹관계의 지속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국제정세는 지난 9.11 사태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후세인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연이면 이라크를 정면 공격 하겠다고 선언하여, 지구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남한을 불모로 핵 동결 파기를 선언함으로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미주에서는 신년 1월 13일 이민의 선배들이 이곳 미국 땅에 이민을 시작한지 100년을 맞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각종 사업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미주 동포에게 지난 한해 추진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미주총연) 사업에 관해 보고드릴사항은 “미주 총연을 미주 동포 사회 구심 대표 단체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하여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한인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심화를 위한 각종사업과 관계당국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민사업 분과 위원회에서 내년사업으로 계획했던 이민 100년 사업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년새해 남은 임기 중 해야할 중요 사업으로서는 미주 총연을 중심으로 180개 지역 한인회를 한데 묶는 전산 네트워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회 100년 및 미주 총연 25년사를 편찬’ 하기 위하여 필라에 있는 미주 동아일보사 임보현 사장(미주 총연 홍보 분과 위원장)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이민 100년 기념행사를 하와이에서 개최하고, 5월엔 제 7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를 역시 하와이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 제 20대 미주 총연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축제 속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미주 총연 확대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1월 13일 전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100주년 기념행사를 각 지역 한인회 주최로 개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법 개정에 관하여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정하여 존속시키도록 강하게 건의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미주 총연 회원들과 200만 미주 동포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을 보내고 2003년을 맞이하면서--.

이민 100주년 기념 개막식

축 사

(2003. 1. 13 이민 100주년 기념(하와이) 개막식에서

- 당시 개막식에서는 영어로만 Speech 하다. -

존경하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 김창원 회장님, 한국 측 이종찬 회장님, 박관용 국회의원회장님, 양성철 대사님, Linda Lingle 하와이 주지사님, Ronald T.Y.Moon 판사님, 김민하 민주 평통 수석 부의장님, 김덕룡 의원님, 조응규 의원님, 김창복 의원님, 박명환 의원님, 김태식 의원님, 이정일 의원님, 권병현 동포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100주년을 맞는 역사의 현장에서 계미년이 시작되는 정월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02명의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검푸른 태평양 파도를 헤쳐 이 곳에 도착한 후, 오늘날 미 전역에 200만 이상의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민 선조가 이민의 삶을 시작한 역사의 현장에 모여 100년 간의 이민 선배들의 눈물겨운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여 100년 후 우리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의 상을 남길 수 있는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신 김창원 회장님과 한국 측 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종찬 회장님, 민병용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본 100주년 기념 사업회 명예 회장으로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분위기 고조와 북한의 핵 봉쇄의 일방적 파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여학생 사망 사건 이후 반미 시위로 연결되는 고국의 사회 불안 등으로 세계 평화와 경제 전망이 어둡기는 합니다만, 계미년 새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말끔히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 동포 사회가 각 지역 한인사회는 해당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한인회와 200만 동포사회는 미주 총연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21세기를 주도할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위에 가득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Remark

President Chang–Won Kim, President Jong–Chan Lee, Centennial Committe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Honorable The speak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wan Yong Park, Honorable Ambassador Sung–Chul Yang, South Korean, Honorable Governor Linda Lingle, State of Hawaii, Honorable Chief Justice Ronald T.Y.Moon, Supreme Court of state of Hawaii, Senior Vice President Min Ha Kim, the advisory council of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ROK., Congressmen Duk Ryong Kim, Woong Kyu Cho, Chang Bok Lee, Myung Whan Park, Tae Sik Kim, Jung Il Lee, Ambassador Byung Hyun Kwon,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nd President Jae Sook Kim, Min–dan in the Japan, distinguished guest,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in the first month of the new–year, at the very place where Korean immigration began.

One hundred years ago, 102 of our Korean ancestors crossed the Pacific to arrive in this land. Today, the Korean population has grown to over 2 million across the United States. The significance of today’s gathering is to reflect over the past 100 years of Korean immigrant history, and to construct plans for the next 100 years which we hope to pass onto our children. As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representing the 180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as honorary president of the Centennial Committe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here today, and especially president Chang–won Kim, president Jong–Chan Lee and Byung Yong Min, Secretary of General of centennial committee for your time and effort in making this occasion so special.

Currently, world peace and economic stability are threatened by many unfortunate circumstances around the globe. The possibility of war between the U.S. and Iraq is escalating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ituation is producing great anxiety. Anti–American sentiment among the South Koreans followed by the death of two Korean girls has also have created chaos in South Korea. It is my hope that in this New Year, such unfortunate events will be resolved and cease to occur and through the difficulties we experienced together this past year, those Korean–U.S. relations to become deeper and closer. As we celebrate the 100th year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let this be an opportunity for the 2 million Korean Americans to unite and provide maximum support to the Korean Associations in their respective States. The Associations must also work together centering around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t is our job to take part in becoming leaders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your time and effort in preparation for this special event, and may God pour his blessings up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 would now like to continue my greetings in Korean, your patience during this time is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대 남부 뉴저지 한인회 소 헌, 유캐라 회장 이, 취임식 축 사

지난 2 년이 넘는 동안 대 남부 뉴저지 한인들을 대표하여 여러 방면으로 애쓰신 소헌 회장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경하 드립니다.

소헌 회장은 미주 총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셨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시고, 이민 100 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훈' 행사 개최 및 이민 100 주년 기념 주화 발행을 위해 애쓰시는 등 뉴저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셨음은 물론, 뉴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뉴저지 한인회를 향한 강한 열정과 큰 뜻을 품고 오늘 제 21 대 회장에 취임하시는 유캐라 회장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간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을 위해 애써오신 유 회장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적인 노력이, 이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앞서가는 한인회로 성장, 발전시켜나가는 데 그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이 문을 여는 제 21 대 뉴저지 한인회의 여러 가지 사업 목표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지난 대에서 이룬 훌륭한 업적들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여 명실공히 지역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인회로 위상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뉴저지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계 각 국의 소속 민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생활풍습 등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화합하는 지역으로 거듭 발전해왔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양성을 통한 화합의 기회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해가며 성장하고 있는 뉴저지 지역의 여러 주민들 가운데 특히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한인들이 화합과 단결을 위한 노력과 정성면에서 가장 으뜸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뉴저지 한인회가 뉴저지 전 지역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며 가장 모범적인 한인회로써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인회를 통한 동포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미주 전체 220 만 한인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1 년 7 월 1 일 제 19 대 미주 총연이 출범한 이래 미주 한인 동포들을 향한 많은 꿈과 목표들도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9.11 테러 및 여중생 사망사건, 북한 핵문제 등 시시각각 변해 가는 정세에 즉각적이고도 적,

극적인 대응을 펼쳤을 뿐 아니라, 총연과 각 지역 한인회를 하나로 묶는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면세 혜택 허가 번호 획득,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한인회 100년 및 총연 25년사’ 책자 발간
등 다방면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미주 200 만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있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미주 총연에서도 뉴저지 한인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뉴저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2003년 3월 26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제 5 차 임원.이사 확대 간부 합동 연석회의 및 시애틀 지역 세미나 인 사 말

이오영

존경하는 김병직 서북미 연합회장, 홍승주 시애틀 한인회장, 김재국 주 시애틀 총영사님, 신호범 주 상원의원, 이도영, 임용근, 신필영, 이민취 고문님, 그리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자문위원, 중앙상임위원을 포함한 임원.이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 50 개 주 방방곡곡에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시애틀 지역 세미나에 특별 연사로 참석해주신 임용근 전 상원의원님, 박영민 시장님, 장태수 시의원님, 그리고 하만경 나이키 부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19 대 미주 총연이 출범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 개월 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간 제 19 대는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

1) 미주 총연을 '200 만 미주 구심 대표단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o 각 지역 한인회와 대외 기관간에 On Line 과 Off Line 네트워크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총연의 위상 제고와 180 개 지역 한인회는 물론 200 만 미주 동포사회 구심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에 일환으로 5 차에 걸친 임원.이사.중앙합동 연석회의 및 지역세미나와 "2002 한인 지도자 대회 개최를 비롯,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o 대외적으로 미주 총연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아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지의 한인 연합 단체와 교류를 넓혀갔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 단체와도 중요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관계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o 제 18 대에서 구축한 Homepage 가 특정 컴퓨터 회사에 Rent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총연 소유의 Web Site 로 전환하고, 전자실을 운영, 회장이 누가 되든 4 단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1 단계 : 한글 Website 구축으로 총연과 지역 한인회와 기초적인 Network 를 확립하고, 총연의 조직과 활동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제 2 단계 : 영문 Website 구축으로 주류 사회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차세대와 거리를 좁히고, 정체성 전수의 구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 3 단계(2003 계획) : 180 개 지역 한인회와 Network 구축.

(총연 서버에 각 지역 한인회의 Homepage 를 연결하여, 한인회 정보 센터화.)

제 4 단계(계획) : 지역 한인회와 Network 가 끝나는 대로 Portal Site 구축으로 미주 총연을 미주 한인 사회 각종 정보 센터 구심화.

2) 회장 취임 이후, 우선적으로 미주 총연을 비영리 단체를 재정비하여 세금 공제 허가를 획득하여, 누구나 총연에 납부하는 회비나 Donation, 그리고 이자 등 수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3) 재정보호 -

○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힘있는 총연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사무처 운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연의 자립 재정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 2002 년도부터 미주 총연 역사상 처음으로 모국 국회에서 미주 한인 구심 대표 단체 발전 육성 기금으로 1 억 원이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사관에서 ‘한인회 100 년 및 총연 25 년 사’ 편찬 보조금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현재 편찬을 맡고 있는 미주 동아일보와 긴밀한 협조 하에 늦어도 5 월 20 일까지 출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 년도 본국 예산에서 미주 동포 구심화를 위해 1 억 원을 확보하였고, 미주 한인 이민 100 주년 기념 사업 본토 지원금으로 2 억원이 국회에 통과, 책정되도록 동포 재단은 물론 국회 해당 의원 들을 방문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4) 사무처에 2명의 유급 직원을 두고, 사무처의 위상제고와 행정체제 확립으로 발송문건 323건, 대내. 외 기관으로부터 수신문건 400 여 건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Off Line 시스템에 의한 홍보를 위해 미주 총연 신문을 4 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전 회원에게 우송했습니다.

5)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헌법 불합치 개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미주 총연의 의견을 결집하여 Penalist로 서울 국회 한미 포럼 주최 공청회 참석 또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결의문에 담아 관계 부처인 국회와 정부,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모국의 재야 세력과 협조 체제를 구축, 개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국의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간사실로부터 오늘 국회 상정 입법 초안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아 가시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그 외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9.11 미 중요도시 테러 공격사태,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반한.반미 감정 확산 저지, 북한 핵문제, 대구 지하철 참사, 이라크 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에 적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총연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7) 아울러 제 19 차 총회에서 위임한 회칙개정을 “11 인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보완하여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제 19 대를 운영해 왔으며, 그 외에 모든 한인회 이.취임식이나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에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등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 앞으로 남은 짧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1. ‘한인회 100년 및 총연 25년 사’ 출판을 5월 20일 경 출판할 계획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해 임보현 위원장 겸 미주 동아일보사장께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 2003 세계 한인 지도자 대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선 다음 업무보고에서 김호원 미국 측 운영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3. 제 19 대 업무보고서를 출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4. ○ 오는 5월 ‘2003 세계 한인 지도자 대회’ 개최
○ 6월 - 한미 동맹 50주년 기념을 위한 4개 도시 순회 행사 협찬을 비롯하여
○ 제 20 대 회장 선임을 위한 축제 분위기 속에 총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5. 특별히 제 20 대 회장 선거는 제가 제 19 대 회장 취임사에서 선거 개혁의 의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탄생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회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미주 총연 임원.이사 그리고 회원 여러분!

본인은, 미주 총연 후반기가 조기 선거 분위기로 과열되어 잔여 임기에 계획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임기를 마감하고 잔여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중요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분위기를 과열시키거나 과격하게 몰고 감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임을 잘 알고 있는 연유로, 지난 3월 초에 모든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선관위의 세부 일정에 의거 동등하게, 잡음 없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리옵기는, 지난 1년 8개월 여 간 바쁜 일정으로 일일이 전화를 못 드려 본의 아니게 결례가 되었던 부분도 있을 줄 믿사오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제 19 대의 남은 임기 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주 총연의 발전에 함께 동참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 교환을 기대하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병직 서북미 연합회장, 홍승주 시애틀 한인회장과 임원, 김경곤 타코마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오늘 행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이 지역 모든 전 회장님의 모임인 한친회 회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28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오영



회의장의 모습

제 22 차 미주 상공인 협회 총연합회 총회 (뉴욕)

축 사

이 오 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지금으로부터 100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웅대한 꿈을 안고 검푸른 태평양 파도를 헤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정착을 시작한 이후, 우리들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이민 선배들이 걸어온 눈물겨운 발자취는 우리들이 힘든 삶의 용기와 희망의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간 미국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종 분야에 지대한 업적과 기여를 해 온 것이 미 의회에 인정되어 지난 6 월 27 일 미 상원과 11 월 10 일 한국 국회에서 “한인 이민 100 주년의 날로 선포”할 것을 의결할 정도로 미주 이민 100 주년은 세계적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민 1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의미는, 지난 100 년간 한인 상공인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 모두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100 년의 웅비를 위한 새로운 설계로,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선배의 상을 남겨야할 시대적 사명을 감수해야할 책무가 이민 1 세들에게 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0 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힘찬 미래를 기약하는 방향으로 승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를 돕고 협조하는 문화 민족이란 자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기틀을 우선적으로 다져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한인 공동체를 위한 Network 을 구축의 기초 위에, 한상 네트워크가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한인 상공인들의 사업을 확산하고, 동포 사회는 물론 모국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세계는 국경의 개념과 민족 개념을 초월하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21 세기를 주도할 민족은, 정체성의 확립을 기초로 민족집단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힘을 배양하여 열린 마음으로 타민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세계로 향하는 비전 있는 민족 집단만이 영원히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축한 민족 집단의 정체성 재확립과 차세대간의 연합으로 주류사회진입의 능력을 배양하여 후대들이 거주 국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 확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미영 연합군은 국제 테러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이라크를 공격하여 승리를 이끈 이후, 세계의 눈길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네바 협정인 핵 동결 협약 파괴에 따른 미국의 강경 대응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의 핵은 없어야 하되, 핵문제는 대화로 풀어 한반도가 평화 정착과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북한은 개방의 문을 열고, 보다 성숙된 국제 무대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재외동포 특히 재미 동포의 국제 여론 환기와 북한 태도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일조 해야 합니다.

넷째로, 반한.반미 감정 확산을 막고, 한미 동맹의 관계를 더욱 깊게 확산해야합니다. 모국의 일부 20-30 대 젊은 층에서 일고 있는 반미 감정 확산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안보 차원이나 경제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안보 동맹으로 우의를 다져온 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재외 동포법 개정을 조속히 매듭 지을수 있도록 힘을 모아 모국 관계 당국에 적극 주장하여야 하며, 차제에 모국의 참정권과 2 중 국적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 개정에 포함 시켜야 할 일입니다

물론 주권 확립 차원과 반미 감정 차원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우호 관계의 기초를 깨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의견과 행동 표출에 신중성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이 행사가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4 차 임원.이사.중앙 동회의(뉴욕)에서 조도식 전직 회장의

축 사

존경하는 뉴욕 총영사이신 조원일 대사님!

이오영 총회장, 김석주 뉴욕 회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미주 총연 제 4 차 임원.이사.중앙 합동연석회의 및 뉴욕 지역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미주 총연이 창립된지도 어언 25 년이 흘러 장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 19 대 총연의 임기도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오영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좀 무엇합니다만, 평소 이오영 회장을 잘 아는 전임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오영 회장은 총연에 오랫동안 봉사해 온 산 역사의 인물로, 제 19 대 회장이 된 이후,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또는 총연 신문을 통하여 알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감히 평가한다면,

- ① 지난 1 년 간 4 차에 걸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회의와 유익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연 및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를 숙의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총연으로 활성화시키고,
- ② 지난 1 년 간 정기적으로 3 회에 걸쳐 총연 신문을 발행, 국내.외적으로 총연의 존재를 널리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 ③ IT 시대에 걸맞게 차원 높은 총연 웹사이트를 개설, 180 여 개의 지역 한인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은 물론 200 만 동포간의 Network 구축과 이를 통한 홍보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고 있을뿐더러
- ④ 전화를 걸면 항상 미주 총연의 이름으로 안내하는 Hot Line 이 설치되어 있고, 회장이 Full Time 으로 사무처에 출근, 상근하는 등 항상 깨어있는 총연 사무처를 운영하여, 총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⑤ 서울에서 개최된 '2001 세계 한인회장대회'의 의장으로 선임되어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주도하는 등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주 총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인정되도록 홍보하였으며,

⑥ 이오영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사무처의 On line 및 Off line 의 행정 체계를 확실히 정립시키고, 사멸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를 재정립시킨 후, 연방 면세지위를 획득하는 등 총연을 미주 동포 구심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지 작업을 새롭게 다졌으며,

⑦ 특히 본인이 총회장 시절, 이오영 회장이 법적 지위 특별 위원장으로 헌법 개정 당시 재외동포 권익을 헌법에 명시할 것과 동포청(당시 교민청) 설립과 교포 재산권 보호, 그리고 체류 비자 연장 등 적극적인 건의를 해 온 장본인으로서,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발빠른 대응책으로 국회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⑧ 지난 5 월에는 워싱턴 DC 에서 2002 년 한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한인 지도자의 역량을 배양하고 미 주류 사회의 진입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다지는 등 의례적인 세미나의 범주를 벗어나, 미 정부 주요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주류 사회 깊은 곳을 배우고, 한인 사회를 주류 사회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⑨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 사업을 전개하여 지난 1 년 간 짧은 기간동안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눈부신 업적을 남겨놓는 등 이오영 회장이 바쁘게 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가 1 년 만에 이룩한 업적은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의 경우, 총연을 떠나 하나님 전도 사업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전직 회장의 한 사람으로 만족할만한 협조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총연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여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극히 일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평가하고 심지어는 총연에 책정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방해하는 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총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민족의 단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총연은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회장시켜 놓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흔들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불평한다면, 그 누가 진정으로 총연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참여 속에서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오영 회장단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사는 사필귀정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 이사,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19 대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시는 김석주 뉴욕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미주 총연과 지역 한인회,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미주 총연 5, 6, 10 대 회장 조도식-